

문학과 정치의 기로

— 마오쩌둥(毛澤東) 혁명의 현실적 승리와
루쉰(魯迅) 혁명의 형이상학적 승리

고 점 북*

<목 차>

1. 들어가며
2. 세계의 가시화, 문학과 정치의 교차
3. 현상의 유지와 변혁, 정치적 지향과 문학적 지향의 차이
4. 나오며

새로운 문단은 적막하고
옛 싸움터는 평화롭다.
천지간에 병사 하나 남아
창을 메고 홀로 방황한다.¹⁾

1. 들어가며

1933년 3월 2일의 일기에 따르면, 상기 시는 작품집 《彷徨》을 구해달라는 일본인 야마가타 하쓰오(山縣初男)의 요청에 따라 지은 것이다. 산문시집 《野草》의 <這樣的戰士>의 전사를 연상시키는 상기 시는 현실에 대한 인식

*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조교수(gaodf@korea.ac.kr)

1) 루쉰, <《방황》에 부쳐>,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제9권(서울: 그린비, 2016, 214쪽).

과 거기에 맞서고자 하는 루쉰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어쩌면 상기 시는 루쉰이 국민성 개조라는 평생의 화개운(華蓋運)을 감당하며 벌였던 고투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불어 루쉰의 이와 같은 면모가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그를 현대중국의 성인, 혹은 중국문화혁명의 주장(主將)이라고 평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상기 시에서 본고의 논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부분은 문학 혹은 문학가의 존재론적 양상이다. 1930년대 초 중국의 역사적·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기 시에서 보이는 루쉰의 실존적 고독과 거기에 맞서 고투를 벌이는 모습은 그 자신은 물론 그의 문학적 비전이 처한 곤경을 떠올리게 한다. 개인사적으로 루쉰은 1920년대 후반의 혁명문학논쟁을 거쳐 성립된 좌련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1930년), 민권보장동맹 가입(1932년) 등 현실 정치의 전장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단은 적막하고, 옛 싸움터는 평화롭다는 루쉰의 현실인식은 당시의 역사적·정치적 역동성(혹은 위기)과는 상이하게 느껴진다. 물론 상기 시와 같은 현실인식은 당시 중국의 문단 혹은 문학적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정치적 역동성과는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본고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역사적·정치적 역동성과 일견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단의 침체이며, 그 가운데 창을 메고 홀로 방황하는 병사 루쉰의 면모이다. 이는 어쩌면 1920년대 후반의 혁명문학논쟁 이후 중국 좌익문단의 주류로 자리 잡은 혁명문학, 다시 말해 문학의 정치복무에 대한 강조가 낳은 결과물일 수도 있으며, 역으로 이는 국가적·민족적 위기의 심화를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적·민족적 위기의 심화와 함께 문학의 정치복무는 1940년대 이후 중국현대문학의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본고는 그 전환점이 마오쩌둥의 <엔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가 아닐까 추론해본다.

1940년 1월의 <신민주주의론>에서 마오쩌둥은 “루쉰은 중국 문화혁명의 주장(主將)이며 위대한 문학가일 뿐만 아니라 또 위대한 사상가이며 위대한 혁명가이다”²⁾고 말한다. 루쉰에 대한 마오쩌둥의 이와 같은 표현은 이후 루쉰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침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고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마오쩌둥이 루쉰을 ‘정치가’로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로부터 마오쩌둥의 중국혁명과 국민성개조라는 루쉰식 혁명의 차이를 낳은 근원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그것을 정치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세계의 가시화, 문학과 정치의 교차

1937년 루쉰 서거 1주년을 기념하여 섬북공학(陝北公學)에서 개최된 기념회에서 마오쩌둥은 “그(루쉰, 본고)는 비록 공산당조직의 당원은 아니었으나, 그의 사상, 행동, 저작은 모두 마르크스주의화한 것들이다”³⁾고 하면서, 중국혁명사에서의 루쉰의 지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하림은 마오쩌둥이 루쉰의 정신과 사상을 강조했던 원인으로 “청년들이나 문학예술가들이 대부분 소자산계급이나 자산계급 출신의 도시생활을 경험한 인물들로, 낭만적 열정에 충만해 있고, 교조주의적 코스모폴리탄이라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이자 교육의 방편으로 루쉰 정신을 강조했다”⁴⁾고 분석한다. 또 마오쩌둥의 루쉰 수용은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주요하게는 “항일전의 수행과 국민당과의 대치라는 이중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모택동은 물리적, 군사적, 경제적 열세를 루쉰이라는 상징을 통해 ‘사상적, 정신적’ 측면에서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⁵⁾이라고 본다.

2) 마오쩌둥, <신민주주의론>, 김승일 옮김, 《실천론·모순론(외)》(서울: 범우사, 2001년 초판 2쇄, 163쪽).

3) 김하림, <文化大革命 時期 魯迅 評價에 관한 研究>, 《중국어문논총》 제15집(중국어문연구회, 1998년, 520쪽)에서 재인용.

4) 김하림, 위의 논문, 521쪽.

5) 김하림, 위의 논문, 522쪽.

마오쩌둥의 루쉰 수용에 대한 김하림의 견해는 루쉰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수용의 전범이 되었던 마오쩌둥의 평가는 한 마디로 정치적·군사적 열세를 사상적·정신적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했던 특유의 유의지론적(唯意志論的) 견해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루쉰이 공산당원이 아니었다는 마오쩌둥의 언급, 그리고 물리적·군사적·경제적인 것과 사상적·정신적인 것으로 대비되는 정치와 문학의 관계이다. 그것을 본고는 정치와 문학이 현실에 개입하는 방식의 차이로부터 고찰할 것이다. 간단히 중국혁명을 이끌었던 마오쩌둥이 현실에 개입하는 방식은 정치적·군사적 전략이었다면, 국민성 개조라는 형이상학적 혁명에 침잠했던 루쉰이 현실에 개입하는 방식은 중국인의 사상과 정신을 담아내는 문예였다.

이의 연장선에서 마오쩌둥의 경우 중국공산당이라는 정치적 봉당의 부재는 곧바로 중국혁명의 불가능을 상징한다면, 루쉰의 정신혁명만은 최대한 정치적 봉당과 거리를 두어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간단히 정치는 집단적 행위이며 문학은 개인적 행위라는 점에서 개입 방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성개조라는 루쉰적 혁명의 형이상학적 과제와 현실변혁이라는 마오쩌둥 혁명의 정치적 과제의 궁극적인 차이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양자 모두 현실과 중국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시 말해 중국 현실의 가시화는 마오쩌둥의 혁명이든, 루쉰의 혁명이든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정치와 혁명이라는 어휘를 통해 중국현실의 가시화를 도모하고 그렇게 가시화된 현실의 변혁을 도모했다면, 루쉰은 문학과 혁명이라는 어휘를 통해 가시화를 도모하고 중국인의 사상개조를 꾀했다. 바로 이 점이 정치와 문학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마오쩌둥에게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현실정치적 비전이라면, 루쉰은 정치적 비전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궁극적인 무언가(편의적으로 사상개조를 도모하는 기제로서의 문학적 비전과 실천)를 중시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루쉰이 마오쩌둥과 같은 현실혁명의 필요성과 전략을 등한시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1936년

에 루쉰이 구술한 것을 馮雪峰이 옮겨 적은 <트로츠키파에 답하는 편지>에서 중국혁명과 관련된 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들의 ‘이론’은 확실히 마오쩌둥 선생보다 훨씬 빼어납니다. 어찌 훨씬 정도 이겠습니까. 한쪽은 하늘 위, 한쪽은 땅 밑이지요. 하지만 빼어난 점은 경탄할 만 하나, 어쩔 것입니까. 그 빼어남을 하필이면 일본 침략자들이 반기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 빼어남도 결국은 천상에서 지상의 더러운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나는 당신들이 일본 돈을 받아 마오쩌둥 선생 등의 ‘일치 항일론’을 공격하는 간행물을 낼 정도로 타락하였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요.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그저 한 마디만 말하고자 합니다. - 당신들의 빼어난 이론은 중국 대중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행위는 현재 중국인의 도덕에 위배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⁶⁾

상기 인용에서 루쉰은 트로츠키파의 이상적이지만 공허한 주장보다 마오쩌둥의 현실적이면서 직접적인 항일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치적·군사적 전략은 현실적이면서 직접적이어야 중국인의 환영을 받을 것이며, 그런 면에서 마오쩌둥의 ‘일치 항일론’이 전략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루쉰의 평가는 ‘일치 항일론’이 당시 중국의 정세를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아닐 것이다. 이어진 글에서 루쉰은 “절실하게, 허공이 아닌 땅 위에 발을 딛고 서서 지금 중국인의 생존을 위해 피 흘리며 분투하는 사람을, 나는 동지로 삼을 것이고, 그것을 영광으로 느낄⁷⁾” 것이라고 말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루쉰은 공산당원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정세와 거기에 대처하는 정치적·군사적 전략에 대한 분석은 즐기치게 중국의 현재를 문제화했던 그의 문학적 지향과도 부합된다. 루쉰이 주장하는 문예는 ‘현재의 문예’다. ‘현재의 문예’는 우리 자신의 사회를 기록하며, 우리 자신마저 기록해 놓는다. 소설에서 사회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를 자신도 발견할 수 있다. 반드시 우리 자신과 관계가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마저 불사르고, 반드시 사

6) 루쉰, <트로츠키파에 답하는 편지>,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제8권(서울: 그린비, 2015, 746쪽).

7) 루쉰, <트로츠키파에 답하는 편지>, 위의 책, 747쪽.

회에 참여하는 것이 현재의 문예다.⁸⁾ 이상적이지만 공허한 혁명전략보다 지금의 중국인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치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루쉰답게 문예 또한 지속적으로 현재를 문제화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마오쩌둥이 루쉰을 “전면에 내세우고 떠받든 것은 그가 5·4문학의 대표이며 또 국민당 정부에 대하여 일관되게 대립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이다.”⁹⁾ 현실정치혁명을 중시했던 마오쩌둥은 구국과 독립에 무게 중심을 두기 마련이며, 루쉰은 그와 같은 현실정치혁명의 필요성으로 인해 자주 소환되는 것이다. 정치적·군사적 전략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나운 눈초리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냉정하게 대하고 머리 숙여 달갑게 약자를 위한 소가 되겠다(橫眉冷對千夫指, 俯首甘爲孺子牛)”라는 루쉰의 시가 “千夫”는 여기서 바로 적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흉악한 적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孺子’는 여기서 바로 무산계급과 인민을 가리키는 말로서 모든 공산당원, 모든 혁명가, 모든 혁명문예사업자들이 모두 루쉰을 모범으로 배워야 하며, 무산계급과 인민대중의 ‘소가 되어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 바쳐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아야 한다’¹⁰⁾라고 재해석되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정치적 필요에 의한 문학의 재해석이나 정치적 징후에 대한 기민한 문학적 형상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존해왔다. 특히 중국현대문학이 5·4의 두 가지 모순적 주제였던 계몽과 구망의 연장선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루쉰 문학에 대한 마오쩌둥의 평가는 당시의 국제정치 관계에서 추론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마오쩌둥의 정치전략의 일환으로 루쉰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문학이 중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가시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예증으로도 볼 수 있다. 더불어 물리적·군사적·경제적 열세에 처해 있던 마오쩌둥이 자신 특유의 유의지론

8) 魯迅, <文藝與政治的歧途>, 《魯迅全集》 제7권(베이징: 인민문학출판사, 1998), 118쪽 참고.

9) 현길언 외, 《문학과 정치 이데올로기 - 동북아시아 한·중·일·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와 문학에 대한 연구》(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5년, 189쪽).

10) 毛澤東, <在延安文藝座談上的講話>, 《毛澤東選集》3권(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3년, 833-834쪽).

적 혁명전략에 부합되는 문학적·사상적 자원을 루쉰에게서 찾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집단적 실천 형식으로서의 마오쩌둥식 정치나 개인적 실천으로서의 루쉰식 문학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세계의 가시화를 도모한다. 구망이나 계몽은 인식의 편의를 위한 가시화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오쩌둥은 구망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가시화의, 루쉰은 계몽으로 대표되는 문학적 가시화의 상징적 존재들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현대문학은 문학과 정치의 필연적인 충돌과 융합, 전략적 교류와 분기를 내함한 채 전개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다. 나아가 현실의 정치적 가시화와 문학적 가시화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국가적·민족적 위기 극복의 유효한 방법론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사실 이런 의문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다. 단순히 생각해보더라도 문학은 우리 삶의 재현 혹은 반영이며, 정치도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문학이 우리 삶의 재현 혹은 반영이라는 점에서 정치의 선행성 역시 수긍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정치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루쉰의 설명은 정확하다. 1929년에 행한 <오늘날의 신문학 개관 - 5월 22일 연경대학 국문학회에서 강연>에서 루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문학이든 모두 환경에 대응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문예지상주의자는 문예에는 세상의 풍파를 선동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정치가 선행하고, 그 다음에 문예가 변합니다. 문예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관념론'으로서 문학가가 예상하는 대로 사태가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¹¹⁾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에서 마오쩌둥은 문학작품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며, 일정한 사회생활이 인류의 두뇌 속에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혁명문예는 인민의 생활이 혁명작가의 두뇌 속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한다.¹²⁾

11)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제5권(서울: 그린비, 2014, 416-417쪽).

12) 마오쩌둥,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 이옥연 편역, 《모택동의 문학예술론》(서울: 논장, 1989, 113쪽) 참고.

또 “어떠한 계급사회 속의 어떠한 계급도 결국은 정치표준을 첫째로 놓고, 예술표준을 둘째로 놓는다”¹³⁾ 고도 말한다. 상기 루쉰의 글과 마오쩌둥의 언급은 정치의 선행과 이의 반영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동일하다. 또 혁명문예와 작가의 관계에 대한 루쉰의 언급 역시 마오쩌둥의 그것과 흡사하다. 루쉰은 “근본 문제는 작가가 ‘혁명인’인가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혁명가라면 어떤 사건을 묘사하든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모두 ‘혁명문학’이다”¹⁴⁾라고 말한다. 정치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양자의 견해 역시 유사하다. 마오쩌둥은 “정치 관점이 잘못된 예술품도 반대하지만 정치 관점만이 정확하고 예술적 역량이 없는 이른바 ‘표어·구호식’의 경향도 반대한다.”¹⁵⁾ 루쉰은 “모든 문예는 물론 선전이지만 모든 선전이 죄다 문예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¹⁶⁾ 루쉰에게 모든 문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시된다는 점에서 실령 그것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작품이더라도 선전이다. 이처럼 정치와 문학, 혹은 정치와 작가의 관계에 대한 마오쩌둥과 루쉰의 견해는 원론적으로 거의 흡사하다. 그렇다면 문학이 세계를 가시화하는 방식과 정치의 가시화 방식의 차이가 남게 된다. 혹은 문학의 정치성, 다시 말해 문학성에 대한 오해가 문학과 정치를 가르는 원인이 된다. 물론 그 오해는 현실의 가시화와 가시화를 통한 현실의 변혁과 관련된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마오쩌둥은 현실정치혁명의 필요에 의해 세계의 가시화를 도모한다. 이에 비해 루쉰은 사상개조의 필요에 의해 가시화를 도모한다. 다른 말로 풀면, 근본적으로 마오쩌둥은 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치가라는 것이며, 루쉰은 현실에 직접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간접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문학가라는 것이다. 아래 인용에서 루쉰은 지식인의 사상개조와 문예의 상관성을 언급하는데, 문예의 정치 복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인의 사상개

13) 마오쩌둥,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 이육연 편역, 위의 책, 125쪽.

14) 루쉰, <혁명문학>,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제5권(서울: 그린비, 2014, 202쪽).

15) 마오쩌둥,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 이육연 편역, 위의 책, 126쪽.

16) 루쉰, <문예와 혁명>,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제5권(서울: 그린비, 2014, 354쪽).

조를 주장했던 마오쩌둥의 그것과 대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판화》의 내용이 소부르주아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농후하다고 말한 것은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식이 그러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결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식이 타락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비혁명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없애려면 필히 우선 이 의식부터 바꾸어야 하고, 이것은 모름지기 경험, 관찰, 사색에서 비롯되어야 하지 공언(空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억지로 전진하는 착한다면, 사실 그의 고유한 정서를 거리낌 없이 풀어놓는 것보다 훨씬 나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우리가 그래도 사회 속의 일부 사람의 심정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지만 후자는 허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¹⁷⁾

인용에서 루쉰은 소부르주아적 분위기를 낳는 원인으로 작가의 의식을 든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 의식이 타락할 위험은 없지만, 혁명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의식을 바꿔야 혁명적인 판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의식의 개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 관찰, 사색 등에서 비롯된 작가의 내부적·자발적 변화이다. 작가 자신의 공언(空言)이나 외부의 강제력에 의한 개조는 작품을 허위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인용을 통해 문학에 대한 루쉰과 마오쩌둥의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루쉰의 경우, 작가의 관념이나 문예가 혁명적이거나 비혁명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예작품에 담긴 진실이다. 반면 마오쩌둥의 경우에는 현실혁명을 추동하거나 뒷받침하는 문예의 혁명성이다. 마오쩌둥에게는 혁명적인 문예만이 진실이며, 비혁명적인 문예는 그것이 제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현실의 진실한 가시화가 되지 못한다. 마오쩌둥의 경우, 문학의 예술성은 단지 현실정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가 마오쩌둥이 민족적·국가적 위기라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문예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루쉰에게 중요한 것이 작가의 사상과 상관없이 현실을 진실하게 가시화하는 것이

17) 루쉰, <리화에게>,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제15권 서신3(서울: 그린비, 2018, 630-631쪽).

라면, 마오쩌둥에게 문예가 필요한 이유는 중국혁명의 진전을 위한 역량의 동원 때문이었다.

마오쩌둥에게 문예는 허위가 되더라도 혁명역량의 동원에 유용하다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오쩌둥이 인식한 당시 중국공산당의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정치전략이었다. 엔안시기 문예에 대한 마오쩌둥의 견해는 정치 우선, 수준의 향상보다 보급, 문예의 예술적 가치보다 민족화와 대중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는 당시 중국공산당의 현실적 약세가 낳은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엔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는 문예와 생활, 문예와 정치, 내용과 형식, 보급과 수준 향상, 세계관과 창작 방법, 문학 비평 기준, 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과 문예 대오의 건설, 통일전선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예와 외부의 관계에 대한 논의일 뿐, 문예 자체의 발전과 문예성에 대한 논의는 아니었다. 설령 문예의 예술성이 요구되더라도 이는 정치에 더 잘 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마오쩌둥은 “문예를 정치에 봉사할 수 있게 인도하고 강요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¹⁸⁾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루쉰에 대한 평가 역시 <신민주주의론>(1940년 1월)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찬양 일색과는 달라진다.

여전히 잡문의 시대이고 여전히 루쉰의 필법을 필요로 한다. …… 우리도 파시즘과 중국의 반동파와 인민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사물들에 대해서 예리하게 조소를 던져야 하나, 혁명문예가에게는 충분한 민주와 자유를 주고 반혁명분자에게만 민주와 자유를 주지 않는 陝甘寧邊區와 적 후방의 각 항일근거지에서의 잡문 형식이 간단히 루쉰과 같을 수만은 없다.¹⁹⁾

<신민주주의론>에서 마오쩌둥은 노예근성과 아첨하는 태도가 추호도 없는 루쉰의 정신이 식민지, 반식민지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며, 루쉰은 문화전선에서 전체민족의 대다수를 대표하여 적진을 무찌른 절세의 민족영웅이

18) 현길언 외, 위의 책, 182쪽.

19) 마오쩌둥, <엔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 이옥연 편역, 위의 책, 128-129쪽.

며, 루쉰의 방향이 바로 중화민족의 새로운 문화의 방향이라고 치켜세운다.²⁰⁾ 그런데 <옌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에서는 루쉰의 필법을 수궁하면서도 소비에트지역과 항일근거지에서의 잡문은 비판 일색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한다. 루쉰의 정신, 사상, 필법, 비판적 태도 등을 전면적으로 수궁했던 마오쩌둥이 적어도 중국공산당이 주축이 되어 혁명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는 루쉰과 같은 비판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면모를 간단히, <신민주주의론>에서의 루쉰은 민족영웅이었지만 <옌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에서의 루쉰은 인민을 위한 '소'로 바뀌었으며, <신민주주의론>에서 새로운 문화의 방향이었던 루쉰의 방향은 <옌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에서는 '공농병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²¹⁾ 이처럼 정치공학적 필요에 따라 루쉰은 전면적 수용에서 필요에 따른 수용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서론 부분에서 중국현대문학의 정치복무가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를 <옌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로 추론하는 이유 역시 이와 같은 면모 때문이다.

루쉰의 사상과 문학에 대한 전략적 수용은 문예가의 계급과 문학의 관계를 '부르주아 문예가=부르주아 찬양', '프롤레타리아 문예가=프롤레타리아 노동 인민의 찬양'이라는 도식적인 인식을 이끌어 낸다. 그러면서 "부르주아 계급의 광명을 찬양하는 작품이 꼭 위대한 것은 아니며, 부르주아 계급의 암흑을 그리 는 자의 작품이 반드시 보잘것없는 것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광명을 찬양하는 자의 작품에 위대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른 바 암흑을 그린 자의 작품은 반드시 보잘것없다는 것, 이것이 문예사상의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²²⁾라는 계급에 따른 작품성에 대한 단정으로 나아간다. 작가의 계급과 문학성에 대한 이와 같은 단정은 이후 중국현대문학의 정치 종속을 강화하였으며, 루쉰의 문학적 지향 역시 마오쩌둥식의 정치적 지

20) 마오쩌둥, <신민주주의론>, 김승일 옮김, 위의 책, 163-164쪽 참고.

21) 안영선, <毛澤東과 魯迅의 관계 재검토>, 《중국문학》 제67집(한국중국어문학회, 2008, 317쪽) 참고.

22) 마오쩌둥, <옌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 이옥연 편역, 위의 책, 125쪽.

향 가운데 해석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루쉰에 대한 마오쩌둥의 평가에서 정치적 코드에 따라 명운이 달라지는 문학의 비애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치적 코드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성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지향과 문학적 지향의 차이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현상의 유지와 변혁, 정치적 지향과 문학적 지향의 차이

마오쩌둥은 변형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통해 중국의 오랜 봉건제를 마감하고, 중국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루쉰과 그의 작품에 정치적 해석을 가했다. 마오쩌둥을 정점으로 한 그와 같은 작업은 당 기관과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확대·재생산되었으며, 건국 후 한 세대를 훌쩍 넘어서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루쉰의 정치적 해석은 역설적으로 루쉰을 화석화(化石化)시킨 면도 강하다. 정치적 지향에 편향됨으로써 루쉰의 문학적 지향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은 면도 큰 것이다. 정치의 부상에 따른 문예의 쇠퇴, 이는 루쉰이 1927년에 행한 <문예와 정치의 기로-12월 21일 상하이 지단대학에서의 강연>에서 이미 예고했던 것이다.

저는 문예와 정치가 늘 충돌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문예와 혁명은 원래 상반된 것이 아니지요. 양자 사이에는 현상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상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현상에 안주하지 않는 문예와는 자연히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²³⁾

루쉰은 정치의 대책점에 문예와 혁명을 두고, 그것의 변별점을 현상에 안주하느냐 여부에서 찾는다. “정치는 현상을 유지하여 통일시키고자 하고, 문예는

23) 루쉰, <문예와 정치의 기로 - 12월 21일 상하이 지단대학에서의 강연>,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제9권(서울: 그린비, 2016, 164-165쪽).

사회의 진화를 재촉하여 차츰 분리시키고자 한다.”²⁴⁾ 문예가 비록 사회를 분열시키지만 사회의 진보는 그와 같은 문예를 통해 이루어진다고도 말한다.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자각하여 현상에 안주하지 않게 되는 것도 문예가가 사회현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저런 비판을 가한 결과이며, 그래서 정치가는 문학가를 사회혼란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를 죽여야 사회가 평온해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가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문예가의 언동에 찬성할 때가 있다. 그때는 정치적·사회적 혁명이 성공하기 전이다.²⁵⁾

정치와 문예, 혁명의 3자 관계에 대한 루쉰의 이와 같은 견해를 정치 전략의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추출해 낸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이다. 앞서 언급했듯, 마오쩌둥은 루쉰을 위대한 문학가·사상가·혁명가라고 칭했다. 물론 중국혁명의 성공 후, 루쉰의 면모가 마오쩌둥에 의해 고착화됨으로써 현상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루쉰의 문학적 지향은 현상에 안주하려는 정치적 지향으로 인해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루쉰의 문학과 문학관이 당시 중국 지식인에게 가장 영향력이 컸음을 간파한 마오쩌둥의 정치적 책략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를 1942년 2월 8일의 <당 팔고에 반대한다>에서 찾을 수 있다. 상기 글에서 마오쩌둥은 루쉰의 1931년 작품집 《二心集》에 실린 <答北斗雜誌問 - 創作要怎樣才會好?>의 문장을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중국공산당 내의 주관주의와 종파주의의 청산을 역설한다.

제3편은 《루쉰전집》에서 뽑은 것으로 루쉰이 《北斗雜誌》社에 보냈던,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를 토론했던 답신이다. 그는 무엇을 말했는가? 그는 글을 쓰는 여덟 가지 규칙을 열거했는데, 나는 지금 몇 가지를 뽑아 이야기하겠다. 첫째, “갓가지 일에 유의하고 여러 번 보며, 단지 한 번 보고 쓰지 말라.”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갓가지 일에 유의하라는 것’이지 한 가지 일이나 반쪽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번 보라’는 것이지, 단지 한 번이나 절반

24) 루쉰, <문예와 정치의 기로 - 12월 21일 상하이 지남대학에서의 강연>,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위의 책, 165쪽.

25) 루쉰, <문예와 정치의 기로 - 12월 21일 상하이 지남대학에서의 강연>,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위의 책, 168-171쪽 참고.

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루쉰과 정반대로 단지 한 가지 점만 보고서 쓰지 않는가? 둘째, “써지지 않을 때는 억지로 쓰지 말라.” 우리는 어떠한가. 분명히 머릿속에 어떤 것이 없는 데도 억지로 뭔가를 대서특필하지 않는가? 조사도 않고 연구도 않고 붓을 들어 ‘억지로 쓰는 것’은 바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다. …… 여섯째, “자기 이외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형용사 류를 억지로 만들지 말라.” 우리는 ‘억지로 만든’ 것이 지나치게 많았고, …… 말끝마다 루쉰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루쉰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²⁶⁾

<答北斗雜誌問 - 創作要怎樣才會好?>에서 루쉰은 자신에게는 글을 쓰는 정견(正見) 같은 것은 없다고 하면서 글쓰기 방식에 대해 8가지 의견을 피력한다. 8 가지의 개략적인 내용은 글쓰기에 임하는 작가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태도, 루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방식, 의미 전달을 위한 정제된 언어의 사용 등이다. 이는 오직 루쉰 자신이 글쓰기를 실행할 때 주의하는 부분이며, 거기에 정치적·당파적 견해를 담아내지는 않는다. 그런데 상기 글에서 마오쩌둥은 루쉰의 개인적·문학적 견해를 가져와 루쉰과는 다른 글쓰기 방식을 보이는 작가들을 ‘우리’로 상징되는 정치적·당파적 관점에서 비판한다. 즉, 작가라면 누구든 제시할 수 있는 글쓰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우리, 즉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연계시켜 비판하는 것이다. 마오쩌둥이 루쉰의 견해를 가져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당내의 일부 마르크스주의를 위반했던 사람들이 양팔고와 양교조를 발전시켜 주관주의와 종파주의, 당팔고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것들이 신(新)팔고와 신(新)교조이기²⁷⁾ 때문이다. 그러면서 루쉰은 양팔고를 반대했다고 말하는데, 이 지점은 루쉰의 문학적 지향과 마오쩌둥의 정치적 지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거짓자유서》에 실린 <透底>라는 글에서 루쉰은 팔고(八股) 반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팔고가 성행한 이유로 시험관과 응시생의 편리성을 들고 있다. 그런데 루쉰이 <透底>라는 글을 쓰게 된 계기는 祝秀俠의

26) 마오쩌둥, <당팔고에 반대한다>, 이옥연 편역, 위의 책, 88-90쪽.

27) 마오쩌둥, <당팔고에 반대한다>, 이옥연 편역, 위의 책, 72쪽.

글 <論“新八股”> 때문이었다. 祝秀俠은 서양의 근대 학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신팔고를 비판하는데, 루선은 신팔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왜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신팔고와 팔고를 동등하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²⁸⁾ 루선에게 신팔고는 “과학적으로 얻은 공식을 운용하여 날마다 생겨나는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현상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다만 공식이나 베껴서 모든 사실에다 함부로 끼워 맞추는 것이다.”²⁹⁾ 루선이 祝秀俠의 글을 활용하여 팔고문을 반대하고, 나아가 신팔고의 경향적 오류를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허무주의적 일반화에 반대하기 위함이었다.³⁰⁾ 즉 글을 쓰는 사람들 전부를 팔고, 혹은 신팔고라는 이름으로 매장시키려는 책략이나 글을 쓰려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글이 팔고, 혹은 신팔고가 아닐까 의심하여 글쓰기를 주저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당팔고에 반대한다>에서 마오쩌둥은 신팔고와 신교조가 “우리 많은 동지들의 머릿속에 굳게 뿌리를 내려, 우리가 오늘 개조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힘을 쏟도록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생기발랄한 것이 아니라, 융통성 없는 완고한 것이었으며,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한다.³¹⁾ 그와 같은 신팔고(혹은 양팔고), 신교조(혹은 양교조), 당팔고 등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오쩌둥은 민간과, 외국, 고인(古人)의 언어 가운데에서 유용한 것을 배울 것을 제시한다.³²⁾ 그 목적은 인민대중을 위해 일하는 혁명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당의 작풍을 정돈하자>, <당팔고에 반대한다>와 함께 41년부터 시작된 연안정풍운동의 기본 저작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학습을 개조하자>(41년 5월)에서 마오쩌둥은 신팔고(혹은 양팔고), 신교조(혹은 양교조), 당팔고 등의 병폐가 중국공산당에 전염

28) 루선, <바닥까지 드러내기>, 이보경 옮김, 《거짓자유서》(서울: 그린비, 2011, 150-151쪽) 참고.

29) 루선, <바닥까지 드러내기>, 이보경 옮김, 위의 책, 155쪽.

30) 루선, <바닥까지 드러내기>, 이보경 옮김, 위의 책, 155쪽 참고.

31) 마오쩌둥, <당팔고에 반대한다>, 이옥연 편역, 위의 책, 72쪽.

32) 마오쩌둥, <당팔고에 반대한다>, 이옥연 편역, 위의 책, 81쪽 참고.

된 원인으로 구미나 일본에서 유학한 지식인들을 지목한다. “그들은 유성기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들 스스로 새로운 사물을 인식하고, 새로운 사물을 창조하는 책임을 망각했다”³³⁾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앞서 루쉰이 언급한 신팔고의 폐해와 유사하다.

그러나 루쉰은 신팔고(혹은 양팔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먼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착오를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가져오기주의(拿來主意)를 통해 지속적으로 근대문명의 적극적·주체적 수용을 주장했던 루쉰에게는 필연적이었다. 신팔고라는 명분으로 근대문명을 전파할 글쓰기 형식마저 부정된다면 당시 중국의 시대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고민할 기본적인 담론장마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루쉰은 팔고와는 다른 관점에서 신팔고의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마오쩌둥의 신팔고 비판은 중국공산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었으며, 그것의 핵심은 당 중앙에 비판적인 신지식인의 사상개조라고 할 수 있다. 낭만적 열정에 충만해 있고, 교조주의적 코스모폴리탄적 특징을 지닌 소자산계급이나 자산계급 출신 지식인에 대한 비판이 마오쩌둥의 신팔고 비판인 셈이다. 즉 신팔고에 대한 루쉰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문화적·사상적 자양분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마오쩌둥의 경우는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팔고 혹은 양교조에 대한 마오쩌둥의 비판을 다른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5·4시기 이래 중국 근대화의 방식 가운데 하나로 주장되었던 전반서화론(全盤西化論)에 대한 비판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팔고는 ‘전면적 서구화’론 속에서 주장되었던 서양의 것에 대한 형식주의적인 무조건적 추앙과 중국 전통에 대한 극단적 부정의 사조를 지칭”³⁴⁾하기 때문이다. 신팔고 혹은 양교조에 대한 마오쩌둥의 비판은 루쉰의 문학에 대한 당파적 수용으로 나아간다. 1957년 1월 12일에 있었던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

33) 마오쩌둥, <우리의 학습을 개조하자>, 이옥연 편역, 위의 책, 60쪽.

34) 마오쩌둥, <당팔고에 반대한다>, 이옥연 편역, 위의 책, 72쪽, 양팔고 관련 보충 설명.

의에서의 연설에서 마오쩌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루쉰의 잡문은 대부분 적들에 대한 것이고, 레닌의 잡문은 적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한 동지에 대한 것도 있다. 루쉰식 잡문을 가지고서 인민 내부의 착오와 결점에 대처할 수 있는가?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당연히 적(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적대적 입장에 서서 적을 대하는 태도로 동지들을 대할 수는 없다. 반드시 뜨거운 열정으로, 인민사업을 보호하고 인민의 각성을 향상시키는 태도로 말해야 하지, 조소와 공격적인 태도로 말해서는 안 된다.³⁵⁾

마오쩌둥은 루쉰 잡문의 특징을 적에 대한 조소와 공격으로 해석하면서, 인민 내부의 착오와 결점에 대해서는 인민의 사업을 보호하고 각성을 향상시키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 마오쩌둥이 루쉰식 잡문을 수용하는 최선(最先)의 고려 사항은 적(敵)과 아(我)라는 정치적·당파적 구분이다. 거기에는 문학성이나 문학이 가시화하는 현실의 다양성과 사고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마오쩌둥의 문예관은 일찍이 <신민주주의론>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마오쩌둥에게 “문화혁명이란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혁명과 경제혁명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다.”³⁶⁾ 그리고 정치혁명과 경제혁명을 수행하는 주요한 동력은 전체 대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와 농민 근로대중이기 때문에 혁명적 문화인이라면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근로대중에게 접근시켜야 한다.³⁷⁾

루쉰 역시 중국인의 사상 개조와 문화혁명을 주장하지만, 작가의 정치 참여나 문예의 순수성을 공히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문학의 정치’³⁸⁾라고 명명할 수 있는 루쉰의 문학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문학이나 거기에 무관하다고 주

35) 마오쩌둥, <지식인의 사상개조와 정풍 - 중국공산당 전국선전사업회의에서의 연설>, 이 옥연, 위의 책, 192쪽.

36) 마오쩌둥, <신민주주의론>, 김승일 옮김, 위의 책, 165쪽.

37) 마오쩌둥, <신민주주의론>, 김승일 옮김, 위의 책, 180-181쪽 참고.

38) 이 명명은 자크 랑시에르의 책 제목인 <<문학의 정치>>에서 가져왔다. 자크 랑시에르 지음,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경기 고양시: 인간사랑, 2011, 제2판1쇄).

장하는 순수 문예를 부정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루쉰은 정치의 선행성을 인정하면서도 문학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부정한다. 또 문예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예술지상주의자들의 견해를 관념론으로 치부한다. 달리 말해 루쉰은 정치혁명적 실천이라는 목적론적 해석을 부정하는 한편으로, 현실 초월을 주장하는 예술지상주의자의 관념론도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견해의 부정을 통해 루쉰의 문학이 도달하는 지점은 문학과 정치 혹은 문학의 도구화와 자율성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이를 자크 랑시에르의 언어로 표현하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가시적인 것, 낱말들과 사물들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³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된 ‘정치는 현상을 유지하여 통일시키고자 하고, 문예는 사회의 진화를 재촉하여 차츰 분리시키고자 한다’는 루쉰의 언급을 ‘새로운 결합의 방식’이라는 랑시에르의 언어를 통해 해석해보면 문학의 정치성이 보다 명확해진다. 곧 문예의 고유한 특징은 정치적·관념적·이데올로기적으로 고착화된 개념과 사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새롭게 개척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정치는 그와 같은 “문학을 이용하고 선전하고 고무하고 선동하여 혁명을 촉진하고 혁명을 완성한다.”⁴⁰⁾ 혁명의 완성 후, 정치는 현상의 유지와 통일(혹은 권력의 유지)이라는 본연의 속성으로 인해 문예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루쉰의 인식이며, 이것이 바로 정치적 지향과 문학적 지향의 본질적인 차이일 것이다.

4. 나오며

중국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마오쩌둥은 혁명의 진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39) 자크 랑시에르 지음, 유재홍 옮김, 위의 책, 19쪽.

40) 루쉰, <혁명시대의 문학 - 1927년 4월 8일 황포군관학교에서의 강연>,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제5권(서울: 그린비, 2014, 36쪽).

루쉰과 그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가했다. 마오쩌둥과 같은 정치혁명가들은 문학을 이용하여 혁명을 촉진하고 완성한다. 당시 중국의 현실에 대한 루쉰의 인식 역시 문학의 무용성을 잘 보여준다. 실제적인 혁명전쟁이 있을 뿐인 상황에서 문학을 배우는 것은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⁴¹⁾ “혁명은 고통이고, 그 속에는 어쩔 수 없이 더러움과 피가 섞일 수밖에 없으니, 시인이 상상하듯 재미있고 아름다운 일이 결코 아니다.”⁴²⁾ 이로 인해 ‘새로운 문단은 적막하고 옛 싸움터는 평화롭다.’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이해를 고려하지 않으며, 자연스레 마음에서 흘러나온 좋은 문예작품이 없기 때문이다.⁴³⁾

1957년 7월 마오쩌둥이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羅纓南과 나눴다고 하는 대화는 문학과 정치, 혹은 정치혁명의 성공 후 문학이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反右派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상태에서 湖南의 옛 친구인 뤼지난을 만난 마오쩌둥이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羅纓南은 ‘만약 루쉰이 생존해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자문하며 지낸다고 답했다. 이에 마오쩌둥은 잠시 생각하더니 ‘감옥에 갇힌 채 계속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사태를 보며 침묵했을 것이오’라고 말했다고 한다.⁴⁴⁾ 이를 통해서도 마오쩌둥의 정치혁명과 문학을 통한 사상혁명이라는 루쉰의 방향은 세계의 가시화라는 교차점을 통과하면 상반된 길을 가게 마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루쉰 역시 주지하고 있던 바이며, 문학가는 현실혁명의 성공 후 정치가들이 추구하는 현상의 유지와 통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날말들과 사물들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가에게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마오쩌둥이 루쉰을 혁명가, 사상가, 문학가라고 평가한 것은 상당히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언어와 사물의 관계를 음미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41) 루쉰, <혁명시대의 문학 - 1927년 4월 8일 황포군관학교에서의 강연>,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위의 책, 43쪽 참고.

42) 루쉰, <좌익작가연맹에 대한 의견 - 3월 2일 좌익작가연맹 창립대회에서의 강연>,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제6권(서울: 그린비, 2014, 75쪽).

43) 루쉰, <혁명시대의 문학 - 1927년 4월 8일 황포군관학교에서의 강연>,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위의 책, 36쪽 참고.

44) 안영선, <毛澤東과 魯迅의 관계 재검토>, 《중국문학》 제67집(한국중국어문학회, 2008), 312쪽 참고.

관계 맺어주기를 통해 의미를 발생시키려는 자가 문학가이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문학가라는 존재 자체가 혁명가이자 사상가이기 때문이다. “사물의 관계를 음미하는 사람은 사물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관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인간은 이미 지식과 의지의 인간이지 않으면 안 되기에 문학가는 철학자 이면서 동시에 실행적(實行的) 인간, 곧 창작가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⁴⁵⁾ 문제는 문학가에 의해 새롭게 맺어진 사물과 언어의 관계가 안정과 통일을 추구하는 정치가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물론 정치적 수용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문학이라면 그 자체로 문학 본연의 특성을 상실한 ‘준명문학(遵命文學)’, 즉 문학 고유의 정치성을 상실한 문학에 불과할 것이다. 역으로 사회적 격변기에 문학은 정치전략의 그럴싸한 사상적·이데올로기적 무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魯迅, 《魯迅全集》 제7권,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
 루선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선전집》 제5, 6, 8, 9, 15권, 서울: 그린비, 2016.
 루선, 이보경 옮김, 《거짓자유서》, 서울: 그린비, 2011.
 毛澤東, 《毛澤東選集》 3권,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3.
 모택동, 김승일 옮김, 《실천론·모순론(외)》, 서울: 범우사, 2001년 초판 2쇄.
 모택동, 김승일 옮김, 《모택동선집》 제2, 3권, 서울: 범우사, 2002.
 이육연 편역, 《모택동의 문학예술론》, 서울: 논장, 1989.
 자크 랑시에르 지음,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경기 고양시: 인간사랑, 2011, 제2판1쇄.
 현길연 외, 《문학과 정치 이데올로기 - 동북아시아 한·중·일·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와 문학에 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5.

45) 나츠메 소세키 지음, 황지현 옮김, <문예의 철학적 기초>, 《나츠메 소세키 문학예술론》(서울: 소명출판, 2004, 36쪽).

- 김하림, <文化大革命 時期 魯迅 評價에 관한 研究>,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논총》 제15집, 1998.
- 박길장, <魯迅이 살아 있다면 論斷에 관한 考察>, 중국인문학회, 《中國人文科學》 제45집, 2010.
- 안영선, <毛澤東과 魯迅의 관계 재검토>, 한국중국어문학회, 《중국문학》 제67집, 2008.
- 周紅, <被遮蔽的魯迅形象-階級斗争話語与魯迅的符号化>, 《江蘇教育學院學報》, 第22卷 第4期.
- 袁盛勇, <延安時期“魯迅傳統”的形成(下)>, 《魯迅研究月刊》, 2004년 第3期.
- 劉泰隆, <毛澤東的魯迅論及其在桂林文化城的傳播和發展>, 《廣西社會科學》, 1991年 1期.
- 錢理群, <魯迅与毛澤東>, 《魯迅, 近代性, 東亞細亞, 21世紀》, 한국중국어현대문학학회 7차 국제학술대회, 2001.
- 李松, <契合与歧异#毛澤東的魯迅論 - 兼論毛澤東的革命現代性思想>, 《湖南科技大學學報》 제12권 제1기, 2009년 1월.
- 藍棣之, <症候式分析: 毛澤東的魯迅論>, 《清華大學學報》 제16권, 2001년 제2기.

< Abstract >

A Crossroad Between Literature and Politics

Ko, Jumbok

In *The New Democracy* (新民主主義論), written in January 1940, Mao Zedong says, "Luxun is not only a claim to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 great litterateur but also a great thinker and a great revolutionar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Mao Zedong's expression of Lu Xun was the basic guideline for evaluating Lu Xun. This article has raised questions about the roots of the differences between Mao Zedong's Chinese revolution and the Lu Xun's revolution of nationality reform, and I will discuss them through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literature. To this end,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the political nature of Lu Xun's interpretation by Mao Zedong.

Next, after reviewing Mao Zedong's and Lu Xun's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politics, we will discuss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literature and politics.

Mao Zedong's political revolution and Lu Xun's literary revolution for the reconstruction of nationality primarily seeks objective and rational visualization of reality. In contrast, Mao Zedong's intervention in reality was a political and military strategy, while Lu Xun's intervention in reality was a literary strategy that expressed Chinese thoughts and spirit. But both are the same in that they come from objective and rational perceptions of reality and the Chinese. In other words, the visualization of Chinese reality is indispensable whether it is Mao Zedong's revolution or Lu Xun's revolution. This is the intersection of politics and literature. But politics seeks to maintain and unify phenomena, while literature urges social evolution to separate. In other words, the distinctive feature of literary art can be said to pioneer a new horizon of perception by continually dismantling and reconstru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pts and things that are fixed politically, ideologically and ideologically. Politics, on the other hand, uses, promotes, inspires and incites such literature to promote revolution and complete revolu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evolution, politics has no choice but to stay away from the literary arts due to its inherent nature: the maintenance of phenomena and the unification (or the maintenance of power). As such, literature and politics go a long way after the success of the revolution.

Key words: Lu Xun(魯迅), Mao Zedong(毛澤東), Literature, Politics, Visualization, Revolu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7. 15	2020. 08. 11 -09. 02	2020. 08. 24	2020. 09. 02	2020. 09. 30